

고흥 청소년 200명에게 맛있는 도시락 배달된다

고흥군-그루터기재단-시니어클럽-급식관리센터, 업무 협약 11월까지 잘짜인 도시락, 가정으로 배달...노인 일자리 연계

고흥군과 청소년그루터기재단, 고흥시니어클럽, 고흥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도시락 제공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15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청소년그루터기재단, 고흥시니어클럽, 고흥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같이도시락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다.

'같이도시락 지원사업'은 한 부모·조손가족 등 위기가정 청소년들의 결식 및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잘 짜인 식단으로 구성된 3~4인분의 도시락을 제조·배달하는 사업이다.

도시락은 3월부터 11월까지 고흥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 20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고흥군은 협약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발굴

하고 추천하는 등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또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사업에 드는 비용 지원을, 고흥시니어클럽은 주 1회 도시락 제조·배송을, 고흥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단제공 및 위생교육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리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위기 청소년을 발굴·연계하는 단단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자 고흥시니어클럽 관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성세대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이 꾸준할



지난 15일 고흥군청에서 '같이도시락 지원'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자 고흥시니어클럽 관장, 공영민 고흥군수, 강효창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상임이사, 박재남 고흥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사진=고흥군 제공)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은 군과 그루터기재단,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이 해결한다

광양시는 불철 산불 예방과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18일부터 본격 운영해 3~4월(상반기)과 11~12월(하반기) 집중적으로 파쇄작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영농부산물 파쇄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고령자이고,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고춧대, 과수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모집은 마감됐으며, 오는 9월 중 하반기 모집을 할 예정이다.

파쇄기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춧대에 섞여 있는 비닐, 노끈 등 파쇄 저해물질은 미리 제거해야 하며, 파쇄기와 1톤 차량 진입이 가능한 농경지에 영농부산물을 쌓아두면 된다.

시는 파쇄지원단 운영에 앞서 지난 8일 광양 시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여수시, 초등학교 2개소 어린이 안심승강장 설치

여수시가 웅천·송현초등학교에 어린이 안심승강장을 설치했다.

설치된 승강장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길가에서 위험하게 버스 등을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함으로 여수시 내 최초로 설치됐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에 총 5천1백여만 원을 투입했으며, 승강장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지난해 수차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이로써 최근 인도를 통한 이륜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증가에 따른 어린이들의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비나 눈 등 기상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4일에는 '송현초등학교 어린이안심승강장 준공식'이 열렸으며, 정기명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교직원 및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등하굣길"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순천시, 2024년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모집

20개 내외 우수 학습동아리 선정해,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순천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한다.

평생학습 동아리는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서, 정기적인 학습과 실천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자발적인 학습 공동체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순천시평생교육

포털에 등록된 학습 동아리로, 구성원이 7명 이상이고, 80% 이상 순천시민이어야 한다. 또한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친목과 상호 교류 목적의 단순 소모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동아리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순천시 평생교육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청 누리집이나 순천시평생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동아리는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 200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각종 평생학습 관련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신은숙 평생교육과장은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을 통해 회원들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군, 벌교 오층각 등 향토문화유산 10건 발굴

향토문화유산보호위 거쳐 등재 확정...30일 지정 예고 기간 통해 등재



양산향가 영모제와 360년 전 석탑, 죽천정, 오봉사. (사진 = 보성군 제공).

보성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내 향토문

화유산 발굴에 나선 결과 10건의 숨은 향토문

화유산을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향토문화유산은 보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를 거쳐 등재를 확정했으며, 30일 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통해 보성군 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

향토문화유산으로 확정된 시설은 벌교 오층각·죽천정·효자 문찬석지문·진주소씨 삼강문·산양정·보성 정사제 묘역·오봉사·오봉정사제 선생 생가터·양산향가 영모제와 석돌·보성 제주양씨 통덕랑공파 전동다례이다.

보성군은 10건의 유산에 대해 지정서를 발급하는 한편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보존·관리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향토문화유산의 발굴과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후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순천시, 전남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밀착 컨설팅 진행

순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오는 28일까지 2024년 전남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동체 41개 팀을 대상으로 밀착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팀별 면담을 통해 사업 내용 및 예산 조정 등을 다룬 예정이다. 신규 팀에게는 고유번호증 발급과 사업 실행 시 유의사항 안내를, 기존 팀에게는 사업 고도화 및 장기 활동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도 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1단계(씨앗) 6팀, 2단계(씨익) 10팀,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25팀으로 총 41팀이 선정되어 2억9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 마을만들기 사업은 '2006 좋은 동네 만들기'사업을 시작으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파순마을 만들기 등 매년 다양한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지난 18년동안 약 65억원 예산이 집행됐고, 약 1,500개 공동체가 사업에 참여했다. 공모사업 선정 공동체 대상으로 보조금 회계 및 정산,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텀e 사용 교육이 4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